

2562  
2018

04

살다 보면  
이 카루스의  
날개



독자기고 1  
느껴지면  
길게  
따뜻한  
운지나  
고  
이  
기운  
이나  
고



독자기고 2  
더 모르고  
무겁다  
지은 죄가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종

## 변천은 가상 불변은 실상

만상은 무상하여 찰나에도 변하고 있다.

우선 자기 자신도

십년 전의 자기를 볼 수 없고

작년의 자기를 만날 수 없고

어제의 자기를 만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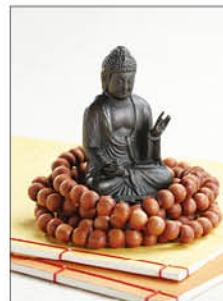
마음과 행동도 자꾸만 변하므로

아침의 나는 벌써 저녁의 내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無我요, 공虛이다.

그러나 실상은 불변이요

가상만이 변한다.



십선성취 32

염송 念誦

— 덕현



법향기 속으로 48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物心競進을  
실천하다—법수연



설화 속으로 58

노힐부득 달달박박  
— 보현

##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3 산책

## 14 계율이야기

## 20 살다보면

## 26 향유

## 32 십선성취

## 36 마음의 등불

## 38 시선

## 40 애견 칼럼

## 44 울림

## 48 법향기 속으로

## 53 씨앗한알

## 54 거꾸로 보기

## 58 설화 속으로

## 62 지혜의 뜨락

## 64 독자기고 1

## 68 독자기고 2

##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4 뜻 바루기

## 76 되짚어보기

##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 집성제4 화령

## 불만 내려놓는 법 — 법륜

## 봄이 오는 길 — 김대곤

## 다툼으로 인한 감정은 잠시라도 품지 말라 — 법경

## 이카루스의 날개 — 이옥경

## 호위무사 — 우연

## 염송 念誦 — 덕현

## 봄을 찾아 春 — 김보

## 그림엽서 — 곽재구

## 강아지의 사회화 — 권도형

## 노력 없이도 완벽한 삶 — 법상

##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物心競進을 실천하다 — 법수연

## 불신不信의 손실 — 백유경

##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행복했을까 — 박현희

## 노힐부득 달달박박 — 보현

##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

##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 강금순

##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 — 불휘

## 내 잘못이다 — 법일

## 업業 — 김재동

## 사바婆娑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나에게 달린 일

턱낫한 스님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삶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에 기운을 줄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 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모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 집성제1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 괴로움은 어떻게 하여 생기는가

사성제에서 두 번째는 집성제<sup>集聖體</sup>입니다. 앞에서는 깨치지 못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의 덩어리라는 것을 고성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고성제가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면 집성제는 그 러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집성제의 집\*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무다야<sup>samudaya</sup>라고 하는데, ‘모여서 일어난다’, ‘함께 일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인과 연이

모여서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성제라고 하면 괴로움, 즉 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진리를 가리킵니다.

고성제에서는 인생이 괴로움 그 자체라는 것을 밝히고, 집성제에서는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서 그것이 번뇌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집성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고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갈애는 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집성제]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가 생기는 집의 성제이니 마땅히 들어라. 미혹을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탐심을 수반하며,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갈애가 그것이다. 그것에는 욕애와 유애와 무유애가 있느니라.

고성제는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여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갈애가 고를 생기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갈애<sup>渴愛</sup>가 곧 번뇌입니다. 갈애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욕망에 가득 차서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갈애에는 욕애<sup>欲愛</sup>·유애<sup>有愛</sup>·무유애<sup>無有愛</sup>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애라고도 합니다. 욕애는 남녀의 정욕이라든가 재산·명예·권력 등에 대한 세속적 욕

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애란 존재에 대한 욕구로서 사후나 내세에도 영원히 행복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서 현세가 매우 불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죽어서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거나 영생을 원하는 것이 유애인 것입니다. 무유애란 존재가 없는 허무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천상의 복락도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이 다하면 다시 고계苦界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든 저 생에서든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는 허무의 상태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유애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죽으면 다 없어질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저지르는 무유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구도 결국에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갈애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갈애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 피부와 의식이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갈애가 된다는 것이지요. 혀를 통하여 늘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눈으로는 즐거운 것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추구가 너무 심하여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 때부터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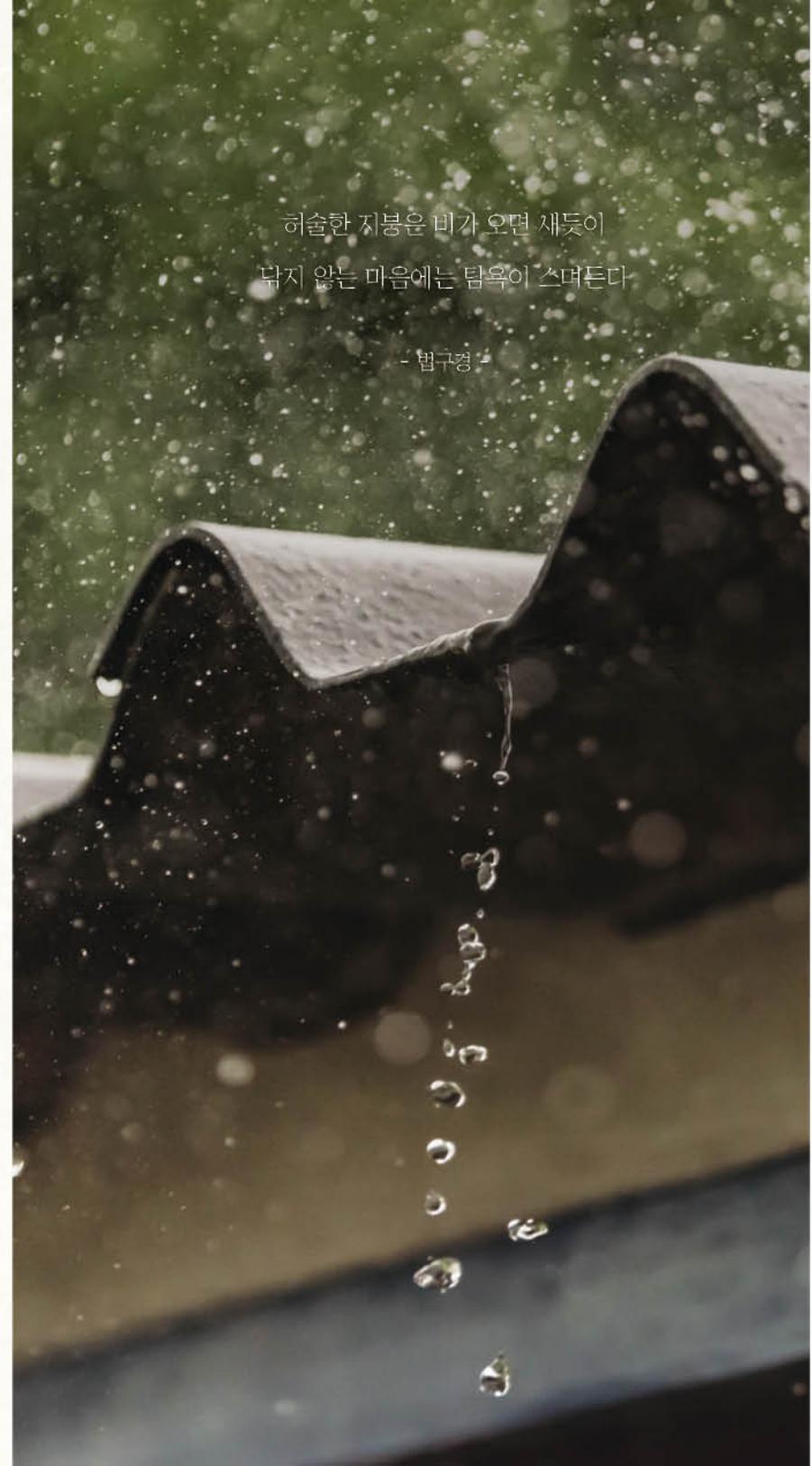
십이연기에서는 고의 근본원인을 무명에 두고 애는 제8지에 두고 있습니다. 촉, 수, 애, 취, 유… 의 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성제에서는 고의 원인으로 애만을 들고 있어 십이연기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애는 잘못된 맹목적인 집착이기 때문에 무명이 당연히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은 곧 번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이연기설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애에는 욕애·유애·무유애의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무명이 그 근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애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여 탐심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대상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는 탐욕과 진에 慾(성내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우치 憨癡(어리석음)의 근본번뇌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탐 진 치 삼독이라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삼독이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근본번뇌가 되어 모든 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다른 말로는 ‘혹’이라고 합니다. 이 혹이 업을 짓게 만들고 그 업에 의하여 우리는 고를 받게 됩니다. 업력에 의하여 생을 거듭하면서 고를 받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즉, 혹→업→고→혹→업→고의 구조로 우리의 윤회가 이루어지는 데, 이 혹→업→고의 구조를 삼도 三道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은 혹, 즉 번뇌와 거기에 기인한 행위인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 고의 세계에 거듭 태어나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삼계는 윤회의 고의 세계를 정신적 경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욕계 欲界·색계 色界·무색계 無色界의 셋으로 나눕니다.

욕계는 감각적인 욕망이 강한 세계로서 우리 인간의 세계가 여기에 속하며 천상계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색계는 감각적인 욕망은 없지만 물질적인 것은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무색계는 물질적인 것이 없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육도는 윤회의 고의 세계를 천·인·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6가지 세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생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윤회의 세계를 육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혹, 즉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성제에서는 고의 근본원인이 번뇌라는 것을 밝혀서 그것을 제거할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허술한 지붕은 비가 오면 새듯이  
닦지 않는 마음에는 텁텁이 스며든다

- 법구경 -

# 불만 내려놓는 법

법률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불만스럽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멋있는 남자가 있어서 열 여자가 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열 여자가 바라는 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또 대통령 선거에 서른 명이 후보로 나서서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모두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겠죠.

여러분들 모두 일은 조금해도 돈은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만약 모두의 뜻대로 된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한국에 사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게 모두 이뤄진다면 서울대학교는 어찌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또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이 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 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됩니다. 사실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세상이 이 만큼이라도 돌아가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괴롭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뜻대로 안 되어도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 않은 상태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를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할 뿐이지요.

저는 뭐든지 제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제 뜻대로 안 되어도 열번이고 스무 번, 서른 번, 마흔 번, 백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퇴전의 신심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할 뿐이에요. 자기가 옳다 싶으면 하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없어요.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간단해요. 불만스러운 마음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서 '쓸 데 없는 질문하고 있다', '아까 설명했는데 또 엉뚱하게 질문한다.' 이런 불만을 가집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치면 금방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쓸 데 없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지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 불만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묻지 말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데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저절로 내려놔져요. '내려놔야지' 하면 절대로 내려놔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벌써 내려놔져 있어요. '앗 뜨거워'하면 그 뜨거운 물건이 벌써 떨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



산에 오르기 전에는  
겨울 내내 아파하며  
인고의 시간을  
참아내며 지쳐있었을  
그런 가슴이 있었음을  
눈치채지 못 했네

서러웠을 시간을 지나며  
꽃망울의 미소를 앞세우고  
사뿐 사뿐 바람을 띠우며 오고있다

어떤 사랑을 할지  
붉은 입맞춤을 할지  
향기를 퍼트리며 날아 다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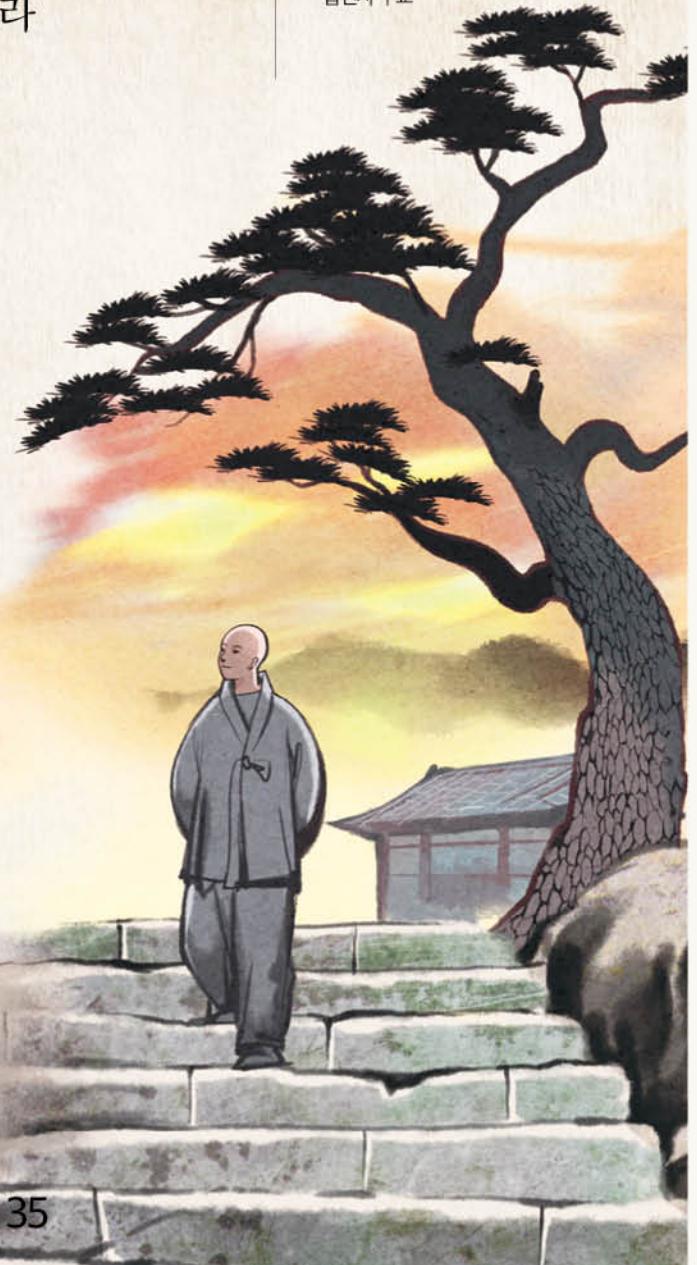
연신 머리풀며 둥구는  
파도는 아는듯 맞장구친다  
하얀구름도  
바람을 안고 웃고 지나가네



다툼으로 인한  
감정은 잠시라도  
품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35

## 묵은 감정

지난 호에서는 악심<sup>惡心</sup>에 대해 말씀드렸다. 악심이란 나쁜 마음, 즉 좋지 않은 감정이다. 그 감정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의 차이, 말투, 언쟁 등으로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다.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은 쌓이고 쌓여서 묵은 감정이 되고, 결국 수원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악심으로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오랫동안 쌓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감정은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과 구성원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묵은 감정은 오래전의 일까지도 들추어내는 습성을 지닌다. 커다란 악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묵은 감정은 갖지 말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를 불교의 계율에서는 희생불여계<sup>喜靜不值戒</sup>라고 말한다. 다툼을 즐겨 하여서 그로 인한 감정을 품지 말라는 게다. 그 다툼을 네 가지로 나열하므로 희생불여계<sup>喜靜不值戒</sup>를 다른 말로 발기사쟁계<sup>發起四諍戒</sup>라고도 한다.

## 희생불여계<sup>喜靜不值戒</sup>

희생불여계<sup>喜靜不值戒</sup>는 대중들과 항상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항상 악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이를 금하도록 하면서 제정된 게다. 그 인연담을 『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구삼비국 구사라원에 계실 때 흑<sup>墨</sup>이라는 비구니가 포악한 성격 때문에 항상 신경질을 내고 묵은 감정을 품고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늘 ‘대중들이 친소<sup>親疏</sup>에 따라 친한 사람에게는 큰 죄가 있어도 별하지 아니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큰 벌을 준다’고 불평불만을 터트리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니를 불러 여러 가지 방편으로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투쟁하기를 좋아하여 항상 다투고 나서 묵은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뒤에 가서 다시 이를 들추어내고 진심<sup>眞心</sup>을 내면서 말하기를, ‘지금 대중들이 친소에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그 비구니를 충고하여 ‘도반이여, 그대는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선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진심을 내어 대중들이 친소에 따라 행동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끝내 말을 듣지 않고 참회도 하지 않는다면 세 번까지 거듭 충고하여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는 승잔죄를 짓는 것이라.” 하셨다.

남과 싸우고 다투는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말싸움이다. 언쟁<sup>爭</sup>을 말한다. 즉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생기는 시비<sup>是非</sup>를 말한다. 물론 불교에서는 대론<sup>對論</sup>이라 하여 교리에 대한 논쟁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언쟁은 삼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다툼은 멀리 하도록 하고 있다. 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언쟁을 하는 것은 구업에 해당한다.

두 번째의 다툼이란 잘못을 들추어내어 생기는 시비<sup>是非</sup>이다. 이를 역쟁<sup>競諍</sup>이라 한다. 결눈질로서 언쟁을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급기야 법정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곤 하지만 불교 수행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묵은 감정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악업의 인<sup>因</sup>을 짓는 것이라는 확고한 자각<sup>自覺</sup>이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끝없는 감정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계를 어긴 사실을 규명하는 데서 오는 시비이다. 이를 범쟁<sup>犯諍</sup>이라 한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과오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참회이다. 참회를 통해 스스로 개선<sup>改善</sup>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과 계율의 본뜻이다. 그래서 불가<sup>佛家</sup>에서 자자<sup>自恣</sup>와 포살<sup>布薩</sup>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중의 논의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시비이다. 이를 사쟁<sup>事競</sup>이라 한다. 회의를 하다보면 논쟁이 일어나고 의견이 첨



예하게 대립되어 감정까지 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악업은 짓지 말아야 한다. 입으로, 뜻으로 짓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짓는다면 나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 원수 되기 십상이다.

수행자라면 언쟁을 일삼고 이로 인한 나쁜 감정을 잠시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묵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감정, 묵은 감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로 인한 구업<sup>口業</sup>마저도 짓지 말아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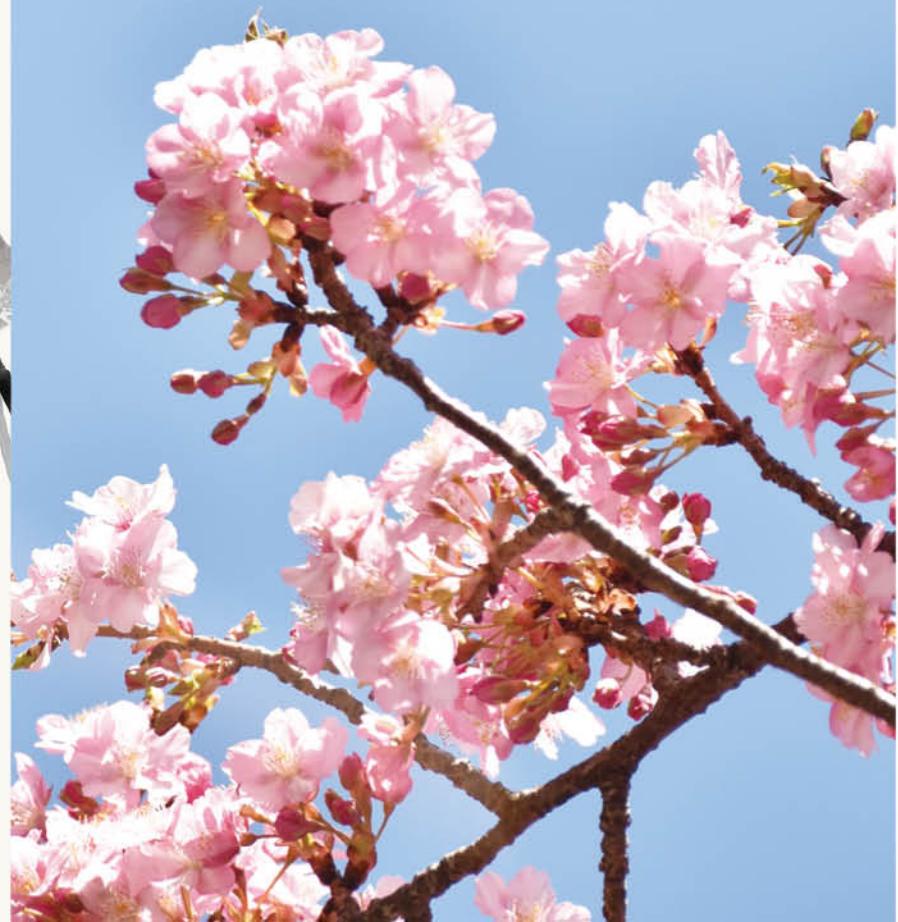


다음 호에는 사타법(捨壟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 법구경 -



## 이카루스의 날개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거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더 아프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미 투 Me too(나도 피해자)'의 여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붙이도 살붙이도 아니지만 저마다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던 이들인 만큼, 그들의 이면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자신의 우매함에 얼굴이 핫핫해지곤 한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발이 저린 사람도, 발 뻣고 자지 못하는 사람도 여럿일 게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들의 그늘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이들도 양심이라는 저울대 위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터.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그들의 추락, 그 위선과 기만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허탈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하다.

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쾌락만이 있을 뿐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법구경)

미 투의 주인공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위드 유 With You'의 물결도 거세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웅원의 목소리는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묵인하고 방조해온 우리 사회에 보내는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미 투의 본질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강자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약자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데 있다.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폭로하고 비난하거나, 가해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단발성 이슈가 아니며 그렇게 매도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미투와 위드 유의 목적지에 공감한다면 뜨거운 분노보다 냉철한 자성으로 이 어지러운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염려가 되는 건 개인의 감정 이입이다. 대오 각성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이고 날 선, 날 것의 감정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



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은 모두 정답이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두 적이다. 냉정한 판단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흙탕물을 일으키곤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실조차 자신의 틀에 맞춘다. (데라가타)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을 봤다. 친구로 보이는 서너 명의 여인네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미 투 수다 삼매경이었다. ~카더라로 주워들은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실인양 앞 다뤄가며 가해자들의 면면을 짓이긴 여인들의 매운 입이 마침내 단죄론으로 번졌다. 발가벗겨서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야 한다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가위질을 해야 한다는 거세론, 콩밥도 아까우니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추방론, 지위와 명예를 모두 박탈해 절대 약자로 살게 해야 한다는 퇴출론에 이르기까지 가히 인격 말살에 가까운 온갖 징벌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과격하기는 해도 그것까지야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분노의 표출이라 여겨져 슬그머니 웃음이 나던 참에 에구머니나! 애면 불뚱이 엉뚱한 데로 튀는다.

그들 중 하나가 평소 진보성향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 여인이 그녀를 향해 “너도 재수 없어!”라고 외친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진보 진영이라며, 진보 쪽은 다 그렇게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간다며, 진보

좋아하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며… 미주알고주알 정치적인 감정 폭발로까지 치닫는 여인의 일방통행, 점입가경에 무방비로 날벼락을 맞은 그녀가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너는 뚱이 무섭디?” 그때까지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여인을 향해 한 방을 날린 그녀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리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옆질러진 물, 깨진 쪽박이다. 여인들의 우정은 온전했을 리 없다.

미 투의 부작용이다. 가해자 한 사람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진영의 논리로 밀어붙이다니. 어느 집단에 속한 몇몇이 물을 흐렸다 해서 그 전체를 초록은 동색이라고 단언하고 단죄하는 건 편견이고 오만이다.

누구에게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그들과 사상이나 이념이 같았다고 해서 싸잡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다니. 더군다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사로운 잣대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망나니의 칼날 이상으로 위험하다.

우리 사회를 두루 강타하고 있는 미 투의 회오리가 워낙 거세다 보니 미 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도처에 난무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가해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그렇다.

법에 의해 범죄 사실의 진위를 가리거나, 범죄의 무게에 따른 합당

한 처벌이 결정되기도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죄를 묻고 가려서 벌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지만,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보고 왈가왈부, 갑론을박하는 일은 피해자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 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법구경)

배우 조민기 씨의 자살이 충격적이었던 건 그런 까닭에서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미 투의 횃불을 들어 올린 피해자의 고발이 아니다. 후폭풍이 두려웠을 것이다. 매장이나 다름없는 국민적인 비난을 한 몸에 받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데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죄악의 선택은 가족과 피해자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낭떠러지 끝에 내몰린 듯, 비겁하고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에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의 죽음은 미 투 탓이 아니다. 미 투의 폼훼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들이는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홍보하거나 상대진영을 비난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 미 투에 편승한 허위사실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마녀사냥에 휩쓸리는 일도 없어야 하려니와, 무고한 사람을 음해했다면 그 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자의든 타의든 절대 권력과

타협을 한 ‘죄 있는 피해자’도 있었을 터. 가해자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자기고백도 나올 법한데. 피해자였으되, 가해자에게 동조하며 가해의 방법을 부채질해 온 사람이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 절절한 참회로 만천하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또 다른 ‘미 투’야 말로 약자의 피눈물 나는 항거이며 응징인 ‘미 투’를 완성시키는 일이 아닐지.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된다. (열반경) ━



※ 이카루스 : 이성과 절제, 중庸의 미덕을 상실한 채 무한한 욕망을 좇다가 추락하는 인간의 표상으로 회자되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양복을 챙겨 입기 위하여 장롱 문을 열었다. 장롱 속은 동굴처럼 어둡고 고요하다. 윗줄에는 상의 양복이 허수아비 모습으로 줄지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바지가 거꾸로 측 널린 채 매달려 있다. 옆 장롱 문을 열어 본다. 그 곳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윗쪽 줄에는 흰색, 푸른색, 회색 등 언제부터 걸려있는지 알 수 없는 와이셔츠가 무표정하게 두 팔을 벌리고 있다. 그 아래 줄에는 형형색색으로 치장을 한 수십 개의 넥타이가 애써 눈을 피한다.

방문자가 주인임을 알아 본 그들은 금방 생기를 찾은 듯하다. 양복 윗도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를 쑥 내민다. 바지는 잔뜩 다리에

힘을 준 채 금방이라도 뚜벅뚜벅 걸어 나올 태세다.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서로 어울리는 짹을 찾느라 바쁜 눈치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들은 일제히 주인을 향해 언제까지 이렇게 가두어 놓을 것인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퇴직한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의 직장생활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고 작심을 하고 결행을 했던 것이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양복 정장차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양복은 어떠한 사정 설명도 없이 졸지에 구금을 당해 버린 것이었다.

양복과의 첫 만남은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이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시작된 양복과의 인연은 32년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고동락을 한 셈이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도 양복 차림이었고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양복으로 만났다. 혈기왕성했던 신입사원 시절에도, 중견 간부가 되어 멋을 맘껏 부리던 그 시절에도 양복은 늘 함께 했다.

이별의 위기도 있었다. 18년 동안 평화스럽게 다니던 첫 직장은 쓰나미처럼 불어 닥친 외환금융위기<sup>MF</sup>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다. 의욕이 넘치고 야심만만했던 20대 청년은 무기력한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미래가 불투명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막막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것들이 떠났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만 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운신의 폭만 줄었을 뿐

이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양복 차림의 인생은 살지 않기로 했다. 고심 끝에 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초기의 사업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남몰래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괴로워하기도 했다.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밤낮 없이 뛰어야만 했다. 위기도 있었지만 성공의 기쁨도 맛보았다. 그때마다 양복은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 삶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다.

아내는 매일 출근하는 남편의 와이셔츠와 양복을 손질하고 넥타이를 챙기는 것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때때로 불평을 내려놓기도 했다. 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뛰쳐나가던 모습만 보아 왔던 아내는 출근하지 않는 남편이 못 마땅한지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지나가는 소리로 슬쩍 말을 던진다.

장롱 안을 들여다 볼 때마다 걸려 있는 양복이 마치 어둠속에 유폐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온다.

사실, 그 동안 양복에 대한 생각을 잊고 지냈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 양복은 내 젊은 날 대부분을 함께 했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한 그루의 나무로 우뚝 서기까지 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지금의 내가 존재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보면 나는 참 의리가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때는 타인의 부러움을 받은 화이트컬러로 의기양양 했건만,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그런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다.

회사는 입사와 동시에 직원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양복이라는 유니폼을 입기를 강요했다. 그것은 어쩌면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키고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가지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직원은 개인의 개성이나 독립성은 제한되고 회사라는 거대한 괴물의 충실햄 손발이 되어 회사가 가리키는 깃발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만 했던 것이다. 회사는 경영위기라는 이름으로 구조 조정의 칼을 휘둘렀다. 양복 정장을 벗어 던지는 순간 그 동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속이 후련하기도 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양복차림이라고 한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양복이 아닌 일반 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어색하고 불편하다. 양복을 입으면 옷이 몸에 착 달라붙고 옷을 제대로 입은 것 같아 행동이 편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넘게 주로 양복만을 입고 살았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호위무사는 주인을 향해 그 시절의 영광을 다시 찾자고 집단 농성을 하는 듯하다. 애써 외면을 한다. 더 이상 그렇게 요란하게 살고 싶지가 않다.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sup>放下着</sup>이고 싶다.

어느 시인의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는 시 귀가 내 마음을 달래 준다. 그렇다 나는, 이제는 돌아와 60대의 오라버니가 되어 거울 앞에 앉아 있다. 호위무사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 줄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양복을 뒤로 하고

아직은 불편하기만 한 일반복에 적응해 가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양복이 아닌 일반옷이 더욱 편안해지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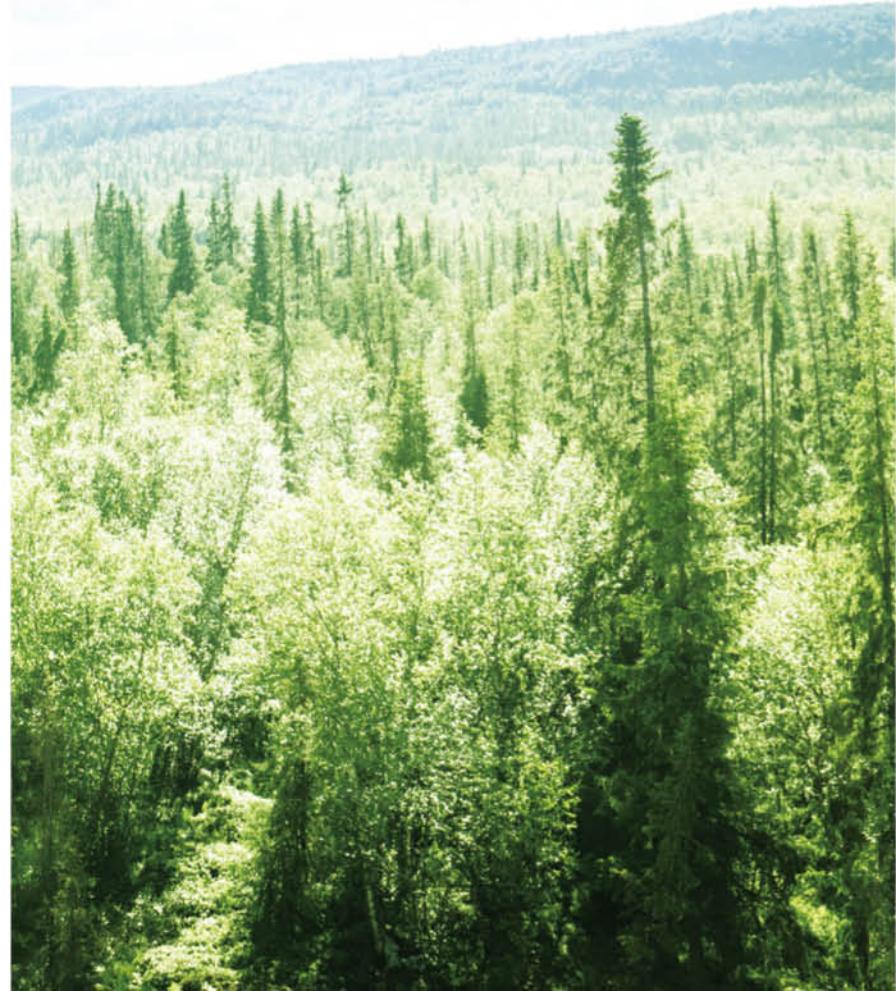
그렇다고 양복차림을 완전히 잊을 수야 있겠는가. 오늘처럼 친구 딸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거나 예를 갖추어야 할 장례식 등에는 틀림 없이 양복차림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나간 옛 시절이 그리워지면 장롱 문을 열고 호위무사를 불러내어 옛 생각에 젖어 거리를 거닐어 볼 것이다. ▲



한번 앉거나 눕고 행함에 있어

방탕함이 없이 오직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 속에 있는 것같이 마음이 즐겁다.

- 법구경 -



## 염송念誦

덕현

법천사 전수



염송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의 경문經文이나 진언,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염송이란 생각할 염, 외울 송의 음 훈을 지닌 글자입니다. 따라서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이 바로 염송입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염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당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염송을 합니다. 진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외워야 참 염송입니다만, 무엇이 그리 바쁜지 염주를 천천히 느긋하게 굴리지를 못합니다.

진언염송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염송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알 한 알의 염주를 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서원사항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송은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송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염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염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진언과 염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송을 하다 보면 참회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옛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 잊고 싶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기억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욱 또렷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속상했던 일들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또다시 원망이나 진심眞心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후회와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다시 짓지 말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염송을 소원성취에 더 큰 뜻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원성취의 염송 못지않게 자기 마음 닦는 염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거짓된 마음을 보이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염송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탐심·악심·진심 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 자신의 마음은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혜는 번뇌와 고통을 없애는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염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염송하는 것입니다. 진언, 부처님, 서원사항에 집중하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염송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해서 염송하는 것이 참다운 염송입니다. 그리고 염주를 한 알 한 알 천천히 굴림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시기심, 어리석음이 서서히 지워질 것입니다. 염송을 통해서 편안함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원당에서 염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당 밖의 생활에서도 실천과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말을 바르게 하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도 넓은 의미로 염송이자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송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말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 낫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염송으로써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들은 모두 공허해지고 맙니다.

염송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위한 염송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염송을 하고 있는가?  
불공기간이나 생활 가운데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활하고, 염송을 하고 있는가?  
총지종의 『불교총전』에서는 『십일면관세음신주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라니를 지송하는 사람은 네 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째는 목숨을 마칠 때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고,  
둘째는 마침내 모든 악취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셋째는 액란을 만나서 죽지 않고,  
넷째는 극락세계에 가서 난다. ┌



# 봄을 찾아

尋春

김보(金普)  
고려의 문신



爲訪清溪好  
策驢清溪道  
人臥澗邊沙  
驢放夕陽草

위방청계호  
책려청계도  
인와간변사  
려방척양초

청계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려고  
나귀를 몰아 청계로 길을 들었네  
사람들은 시냇가 모래에 누워있고  
나귀는 석양의 풀밭에 풀어 놓았네

『심춘(尋春)』, 『대동시선(大東詩選)』

사계절 중 봄이라는 계절은 사람들에게 밝은 이미지와 단어들을 연상하게 한다. 탄생, 생명, 꽃, 화사함, 단란함, 새싹, 나들이, 시작, 성장 등을 상징한다.

시 속의 시인은 어느 봄날 나귀를 재촉하여 맑은 시냇길을 지나며 한적한 곳을 찾고 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나귀는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채 자신은 시냇가 모래밭에 누워버린다. 봄이라 했으니, 따사로운 햇살에 싱그러운 풀내음이 있을 것이고 주위를 감도는 꽃향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더해지고 있으리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는 서산에 지고 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 자연에 몸을 내맡겼을까? 번뇌를 가득 안고 마음을 추스르려는 것이었을까? 그저 봄날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려 했던 것일까? 아무런들 어떠하겠는가. 지금 이 순간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한 것을. 무언가를 생각하고 찾았더라도 그 생각마저 잊어버렸으리라.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바쁘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바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은 많다. 나와 가족의 의식주는 바로 그 바쁨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허나 바쁨이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나와 주변과의 관계 맷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자꾸만 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몸은 일과~~日課~~를 마쳤지만, 머리에선 일과를 털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물리적 휴식시간을 가진다 해도 일상의 바쁨에서 결코 벗어난 것은 아니다.

시인이 찾았던 맑은 물가 모래밭은 어디일까? 이제 봄은 멀리 가고 없지만, 시인의 나귀를 빌려 타고 시인이 누웠던 그 모래밭에 몸을 누이고 싶다. 나귀를 빌리지 못한다면 허위허위 걸어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지는 석양뿐 아니라 떠오르는 달빛도 그곳에서 맞이하고 싶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정원 책임연구원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다리 위는 미끄러웠다. 이삼일 전에 내일 눈이 반질반질 얼어붙었고 하늘에서는 제법 큰 눈송이들이 내렸다. 나는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고 그는 목욕탕이 있는 동네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는 길을 더듬어 가는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고 검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낀 모습이 생소했지만 분명히 목욕탕에서 만난 그였다. 아무런 구김살 없이, 아무런 불편도 못 느낀다는 듯이 목욕을 끝내고 나서던 그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이 날 빙판길을 조심조심 걸어오던 그는 내게 또 하나의 눈여겨볼 애깃거리를 건네주었다. 그의 가슴한쪽에 꽂다발이 한 아름 안겨 있었다. 프리지어였다. 회색빛의 도시와 노란빛의 꽃다발이 싱싱하게 어울렸다.

“참 예쁜 꽃이네요.”

인사 겸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여전히 맑게 웃었다.

“집사람이 좋아해요.”

집사람? 나는 조금 놀랐던 것 같다. 그에게 집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 같은 건 해 보지 않았다. 그는 불로동 다리를 건너서 목욕탕이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한동안 멈춰 서서 꽃다발을 안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작업실 창문으로 불로동 다리 쪽을 바라보던 나는 또 한 장의 그림엽서를 보았다.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 동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

팡이로 길 앞을 더듬고 오는 친구는 분명히 그였다. 한 사람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여자였다. 검은 안경을 낀 여자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집사람이 좋아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조금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에게 집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집사람이 또한 앞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둘은 길을 더듬어 목욕탕 앞길에서 왼쪽 길로 사라졌다. 다방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 그가 가슴에 안고 오던 프리지어 꽃다발이 골목길의 입구에서 싱싱하게 걸려 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 뒤로 가끔 그를 보았다. 동네의 슈퍼에서 과일을 사는 모습도 보았고 중국집에서 그와 프리지어를 닮은 그의 아내가 함께 우동을 먹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목욕을 하러 오는 날이 화요일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다. 화요일 오후 두 시쯤 나는 그를 만나러 동네 목욕탕에 가곤 한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목욕을 끝내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보면서 나는 삶이란 그것을 가꿔 갈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꽃다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

- 「그리움의 발견」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애견관련 내용들이 많이 방송되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성이 강하거나 겁이 많은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변하였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사회화’라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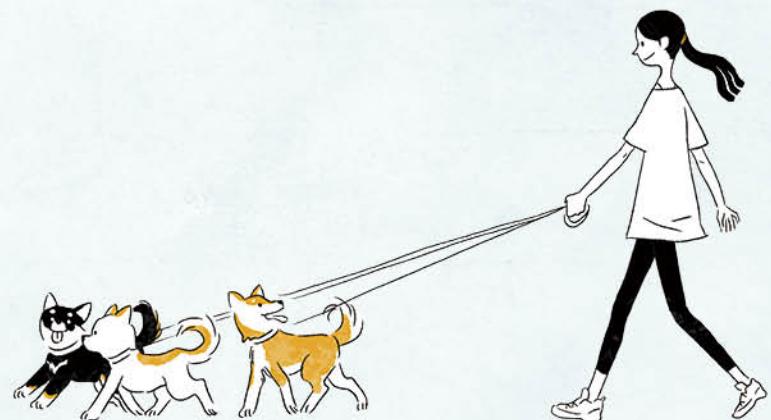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게 되구요.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친구, 선생님을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법,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법,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 등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교육의 시간도 가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상황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회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의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생 후 모견<sup>母犬</sup>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같이 태어난 형제견<sup>兄弟犬</sup>들과 장난치고, 싸우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물고 뜯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 모견으로부터 장난과 공격의 차이를 배우게 되구요. 사람들 의 ‘가정교육’과 많이 닮은 모습이죠?

그 이후 성장과정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떤 것은 경계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기다려야 하고, 어떤 것은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지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성장과정 중의 어린 강아지들을 사람들이 입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건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 시기의 어린 강아지들을 입양하게 된다면 입양 후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사회화 교육’을 직접 해주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화 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sup>思春期</sup>’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아지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화 시기’는 짧게는 생후 10주령, 길게는 16주령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기인 ‘사회화 시기’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강아지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이후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 경계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사회화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강아지 냄새도 맡고,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도 듣고, 길 가에 떨어진 솔방울도 입에 넣어보고, 흙이나 아스팔트바닥도 밟아보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함께 적당한 보상(간식)이 이어진다면 ‘기분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생후 10주면 예방접종도 다 마치지 않은 상황 일텐데, ‘사회화 교육’을 위해 밖에 나가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강아지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아닌 우리집 앞, 현관문 밖, 아파트 단지 정도의 공간에서 가벼운 산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살벼룩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강아지에게도 ‘사회화 시기’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견생<sup>人生</sup>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사회화 시기’가 지난 이후에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어릴 때에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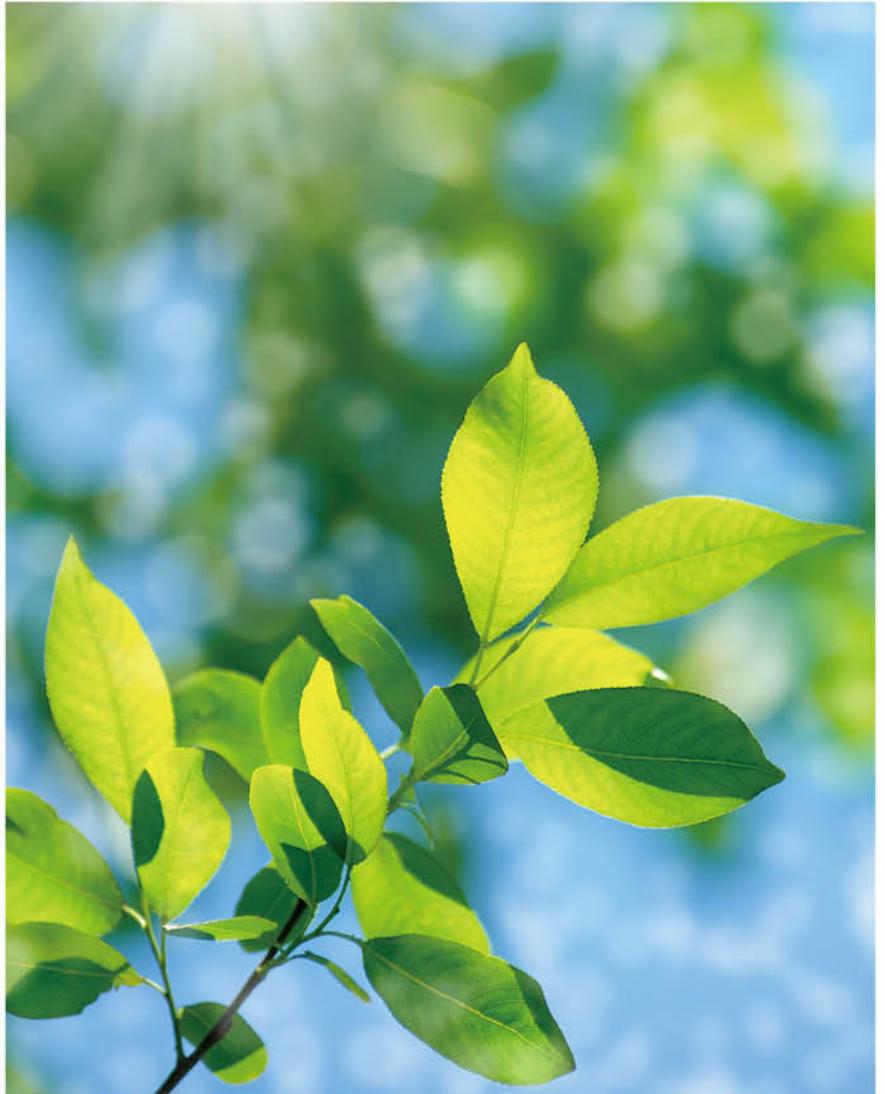
“생명”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신다면 그 마음을 분명 반려견들도 알아채고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 노력 없이도 완벽한 삶

법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아침 두 뺨 위로 간질거리는 햇살이며, 저녁 산책 시간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영혼까지 일깨워 주는 듯하다. 새들은 지저귀고 풀벌레는 노래한다. 부드러운 숨은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을 연주한다. 매일 밤 건강한 두 발로 산책의 숲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없는 행복이다.

내가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 산하의 대자연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를 어김없이 선물 해 준다.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한 숨 들이쉬지 못하면 죽고 마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들숨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봄에 꽃을 피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구름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저 장대한 밤 하늘의 별과 은하수 조차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져 있다. 풀꽃 한 송이에서부터 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저절로 생명을 피워내고 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대로 놀랍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 이처럼 무위로써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나 또한 무위로써 살아가면 된다.

무위란 함이 없이,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자연이 그렇듯 인간 또한 무위의 존재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 아닌가. 그러니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자연스럽게, 저 대자연의 무위행을 따르면 된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집착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에 더 많이 감사하고 누리고 만끽해 보라. 무엇을 하고도 ‘내가 했다’는 상을 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온 우주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낸 것임을 받아들여 보라.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을 가까이 해 보라. 인공적인 조형물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더 많이 교감하고 가까이 해 보라. 헬스장을 찾기보다 산 길을 걷고, 가공식품을 먹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가까이 하라.

일어나는 생각도 그저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오고 가도록 놔둘 일인지,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거나, 그 생각을 실체화하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말라. 그저 모든 생각들이 흔적 없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 인위적인 노력이 개입되는 유위행 보다, 노력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쓰고 사는 무위행 속에 사실은 더욱 강력한 힘과 지혜와 자비가 있다. 안 하는 듯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 진다.

사사로운 아상<sup>我相</sup>이 원동력이 되는 내 노력이 없을 때, 우주 본연의 무한 동력이 삶을 운행해 간다. 아상이 없을 때, 대기대용<sup>大機大用</sup>의 무한 우주가 무한한 쓰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대기대용이란, 말 그대로 이 우주는 크나큰 무한 동력의 무한 생명의 기관 즉 대기로써 이 우주 전체를 한바탕의 쓰임으로 돌리는 대용을

이루어낸다는 뜻이다.

나도, 너도, 자연도, 하늘도, 우주도,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존재가 바로 이처럼 따로 따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대용이라는 이 하나의 우주 무한동력에서 동시에 운행되는 것이다.

연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서로 서로 텁니바퀴 아구가 딱딱 맞듯이 하나가 움직일 때 무한한 우주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대한 한생명의 기관인 것이다. 그러니 이 대기대용의 무한 우주의 운행을 외면한 채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겠다고 우기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무한동력의 힘은 끊기고 만다.

그러니 이 장엄하고 장대한 무한한 우주법계의 대기대용의 운행 법칙을 깨닫는 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우주 속에 녹아 들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우주전체를 내어 쓸 수 있다. ━



이원진리 二元眞理 를 밝혀  
물심병진 物心並進 을  
실천하다

법수연  
화음사 전수

## 21. 물과 심의 이원 원리

(종조법 설집 p.152)

❶ 물질일어 나는때는 탐진치도 일어나고  
탐진치가 치성하면 성품은 곧 어두워서  
일체병폐 생기므로 이때에는 누구라도  
지혜밝게 되는교를 믿고행해 나가야만  
그가정을 보호하고 장원하게 이어간다.

❷ 과학밖에 없다하고 심성진리 무시하면  
오욕칠정 전도되어 정신병이 일어나고  
유물사상 일어나서 도의심은 없어지고  
살도음의 범죄자가 날로성해 지게되어  
가정이나 국가사회 위태하게 되느니라.

- 후략



어느 날 경로당 앞을 지나오는데 양지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앉아 옥신각신하더니 갑자기 목소리 큰 할아버지가 “다 아니야 돈이 최고 효자야” 하시니 다 같이 입을 모아 “맞아”라고 맞장구를 쳤다. 혼자 걸으며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 아니야 돈이 효자야” 여기서 ‘아니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아들? 딸? 순간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며느리, 딸이 되고 아버지이자 사위, 아들일텐데. 사람 ‘人’자는 분명히 서로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건만 사람보다 돈이 효자라니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오답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인간관계, 첨단 의료기술 보다 강한 심성진리의 힘에 대한 일화를 공유해 보려 합니다. 하반기 49일 불공을 앞두고 있는 5월 중순경, 한 때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저런 근황을 나누다가 수지침이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조금 배웠던 수지침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픈 사람을 정식으로 치료할 만큼의 실력은 아닌지라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난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끔 아파서 예사롭게 생각하고 통증이 올 때마다 여기 저기 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젠 통증이 너무 잦아서 운영하던 가게도 접고 좋다는 병원, 한의원을 찾아다니던 중 그런 중세라면 수지침으로 치료해보라는 제안을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당

시 친구의 시댁조카가 병원을 운영하고 친정조카도 종합병원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의사의 답변이 첨단기계로 검사해도 도대체 알 수 없으니 혹시 ‘꾀병’ 아니냐고 까지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집안 내력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 서로 집에 오가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던지라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집안 식구 모두가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친구의 집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진사댁이었거든요. 일하는 언니가 삶아 주는 국수 맛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가 안 좋았다고 하니 아마도 위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돌봐주기는 했으나 엄마의 빈자리는 친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겠지요. 그간 새엄마도 거쳐 갔고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생채기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친구의 질병은 조상의 업연이라 마음을 다스리며 치료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픈 부위로 볼 때 대장쪽이라고 판단하여 몇 차례 대장맥과 폐맥을 자극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병환이 떠올라서 상응부위와는 전혀 다른 위 비장맥을 건드리자 약간의 반응이 왔습니다. 긴가민가했던 생각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교회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의학에 의존하기보다

기도의 힘이 더 잘 통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마침 절에서 28일부터 돌아가신 선망조상을 위한 49일 불공기간이라 참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마음모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 보자고 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제안의 맥락이었습니다.

만약 한다면 첫째,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양의 시간을 49일간 엄수. 기도 시에는 부처님 하느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딸로써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마음을 못 헤아린 점 그간 살면서 어머니의 부재로 힘들어서 원망했던 것을 참회(회개)와 동시에 낳아줘서 감사한 마음을 생각할 것.

둘째, 49일간 매일 희사금(염봉돈)을 얼마를 하든지 정해서 할 것.

셋째, 7일마다 천도불공 할 것.

넷째, 유독 꽃을 좋아했던 어머니를 위한 꽃보시.

다섯째,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대중공양.

이 다섯 가지 중 첫째와 둘째는 필수 사항이고 나머지는 횟수도 선택, 금액도 선택,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가 밝아진 목소리로 함께 하겠다는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지침 치료를 해가면서 49일간 사원에 나가서 친구 어머니를 위한 불공을 49회씩 나름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행여나 나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닌지 조마조마할 때도 있었으나 날이 지날수록 차도를 목격하니 신통

하고 고마웠습니다. 친구는 집에서 49일 동안 새벽5시에 30분씩 어머니를 향한 기도를 했답니다. 때론 뜨거운 눈물로… 친구의 병이 거짓 말처럼 나았습니다.

무려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참회와 감사의 마음 가짐으로 기도한 덕분에 불가사의한 공덕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항상 모정의 갈증과 함께 원망심 뿐이었는데 미안하고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향한 감정이 완전히 변화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행복해 했습니다.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들은 종조님의 가르침과 동행한다면 편하고 안전하게 행복이란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위의 한 사람이라도 더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



옛날 한 장자가 사환을 외밭에 보내어 ‘달고 좋은 외를 사오라’고 시켰다. 사환이 돈을 가지고 가서 외를 사려하자 외 임자가 말했다.

“내 외는 모두 달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당신은 하나만 맛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환이 말했다.

“나는 지금 일일이 맛 본 뒤에 사겠다. 하나만 맛보고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외를 모두 다 맛보고 사오니, 장자가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모두 버리고 먹지 않았다.

세상 사람도 이와 같아서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크게 부유해지고 몸이 항상 안온하여 온갖 근심이 없어진다는 말을 기꺼이 믿지 않고서 그저 ‘보시하여 복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복을 얻은 후에 믿겠다.’고 말한다. 현세의 눈에 보이는 귀천이나 빙궁함이 모두 전생의 업인業因으로 얻은 것인데 하나를 미루어서 인과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다 경험해야 되겠다며 부처님의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치고 재물을 뚫어버리는 것이 마치 저 외를 일일이 맛보다가 다 버리는 것과 같다. ━



#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행복했을까

- 피노키오 이야기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즐겨왔다. 쑥과 마늘만을 먹는 인고의 나날을 견뎌 내자 곰은 사람이 되었다. 피그말리온의 지극한 사랑은 돌덩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는 기적으로 연결된다. 카를로 콜로디는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 기적의 나무 인형 이름은 피노키오. 곰이 사람이 되고,

돌덩이가 사람이 되고,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다니!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는 전국 설화가 되었다. 그리고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 매혹된다. 하지만 이야기 속 주인공, 사람이 된 그들은 행복했을까?

환웅과 결혼한 웅녀는 행복했을까? 곰이었을 때 열망하던 사람들의 삶이 정말 상상하던 그대로였을까? 환웅은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느라 웅녀를 영영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곰 출신 주제에 사람과 맞먹으려 한다고 차별받으며 가슴앓이를 하지는 않았을까?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은 사람이 되어 행복했을까?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사랑했지만 조각상도 피그말리온을 사랑했을까? 피그말리온 덕분에 사람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의 사랑을 받아 주어야 하는 처지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행복했을까?

## 착한 아이가 되려면 학교에 가야 할까?

꼭두각시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피노키오가 착한 아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부모님 말을 잘 들을 것. 둘째, 학교를 잘 다닐 것. 그런데 부모님이 착한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므로 착한 아이의 비결은 하나로 압축된다. 학교를 잘 다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학교를 싫어했다. 피노키오는 방금 태어났고 학교에 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피노키오와 학교에 보내려는 제페토(아빠). 아빠는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팔아서 책을 사오지만 피노키오는 첫 등굣길에 책을 팔아 유랑극단의 공연을 보러 간다. 그 뒤로 이어지는 피노키오의 술한 고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 피노키오는 왜 학교를 싫어했을까?

나비를 잡으러 다니거나 새의 등지를 뒤지러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이 공부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널렸는데, 학교에 가라니! 피노키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이다.

피노키오의 학교생활은 싸움질만 하다가 끝났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노키오는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나서야 ‘존경과 호감’을 얻으면서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을 허락받는다. 아이들을 때리고 걷어차는 것은 전혀 피노키오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꼬임에 잘 빠지고 재미있는 놀 거리를 찾아 끝없이 방황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노키오가 때리고 걷어차는 것을 배운 곳이 학교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집단도 같은 나이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은 없다. 그런데 근대적인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을 학년이라는 등

급으로 나누고, 같은 나이의 아이들로만 학급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이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당한다. 먼저 괴롭히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피노키오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 노힐부득 달달박박

보현  
실보사 전수

신라의 백월산 동남쪽 선천촌이라는 마을에 노힐부득<sup>努勝不得</sup>과 달달박<sup>相拒朴朴</sup>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풍채와 골격이 범상치 않았는데 세속을 초월한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것이 일치해 좋은 친구가 되었다. 스무 살이 되자 두 사람은 마을의 동북쪽 고개 너머에 있는 범적당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승도촌에 있는 옛 절이 정신을 수련하기에 그만이라는 소문을 듣고 함께 찾아가 대불전과 소불전이라 불리는 두 마을에 각각 정착하게 되었다.

부득은 회진암에서, 박박은 유리광사에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밭을 일구며 정신수양을 하였다. 서로 왕래하며 쉬지 않고 정신과 마음을 닦던 부득과 박박은 어느 순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무상함을 느끼고 인간 세상을 벗어나 산골짜기에 숨어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하얀 빛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빛 한가운데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만져주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은 똑같은 꿈을 꾸었음에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결국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박박은 북쪽 고개의 사자암을 차지하여 8척 크기의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부득은 동쪽 고개의 첨첩한 바위 아래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승방을 만들어 살면서 미륵불을 성심껏 구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름다운 자태의 한 여인이 난초의 향기를 풍기면서 박박이 수도하는 곳에 나타나 아래 글을 지어 보이며 묵기를 청하였다.

『갈 길 지체되어 해가 산 속에 떨어져 어두우며 길은 막히고 성은 멀리 떨어져 있네. 오늘 암자에 묵고자 하오니 자비로운 스님은 노하지 마소서.』

박박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한마디에 거절했다. 절은 깨끗해야 하므로 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여인은 발길을 돌려 부득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박박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부득에게 청했다.

『깊은 산길에서 날은 저문데 가도 가도 사방은 끊어져 있네. 대나무와 소나무의 그늘은 한층 그윽하고 골짜기를 울리는 시냇물소리 한층 새롭네. 부디 길을 잊어 묵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스님을 인도하고자 하오니 제발 저의 청을 들어주시고 제가 누구인지 묻지 마십시오.』

부득은 어두워진 밤에 찾아온 이가 비록 아녀자이지만 모른 척 할 수 없기에 머물게 하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염송에만 전념하는데 그 여인은 공교롭게도 임신한 상태였다. 마침 여인은 해산기가 있어 부득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부득이 자리를 마련해 준 뒤 등불을 비추니 여인은 이미 해산을 끝내고 목욕하기를 청했다. 부득은 부끄러움과 망설임이 일었으나 어쩔 수 없이 물을 덥히고 여인을 통 안에 앉혀 목욕을 시켜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통 속 물에서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더니 목욕물은 점차 금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부득에게도 목욕을 청하였고 마지못해 여인의 말에 따라 목욕을 한 부득은 또다시 크게

놀랐다.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더니 자신의 살결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옆에는 연화좌대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다. 여인이 부득에게 앓기를 권하며 말했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스님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부득이 관음보살에 의해 성불한 사이 박박은 여인을 멀리한 것에 대해 은근히 우쭐해 하면서 부득의 암자를 찾았다. 박박이 생각하기에 부득은 분명 여인을 받아들여 계를 더럽혔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박박이 막상 부득의 암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부득은 놀랍게도 미륵존상으로 성불하여 금빛을 발하며 연화좌대에 앓아있었던 것이다. 이에 놀란 박박은 부득에게 그 연유를 물었고 이를 전해들은 박박은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 부처님을 뵙고도 만자지 못한 자신의 미혹함을 탄식했다. 박박은 자신도 성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득에게 부탁하였고 부득은 박박에게 통에 남은 물에 목욕을 하게 해주었다. 박박도 목욕을 하고 아미타불을 이루었다.

산 아래 마을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리러 보고 감탄하였다. 두 성인은 이들을 위하여 설법해준 뒤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훗날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말을 듣고는 백월산에 큰 절 남사를 세워 금당에 미륵불상을 모시고 아미타불상을 강당에 모셨는데 아미타불상은 박박이 목욕시 금물이 모자라 얼룩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박박은 자신의 정진을 위해 여인을 배척하는 반면 부득은 계를 깨고 여인을 절 안에 들이고 해산을 돋고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먼저 성불을 해

야 할 사람은 계를 철저히 지킨 박박이어야 할 텐데 부득이 먼저 성불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를 내치지 않은 자비심이 더 큰 수행이었던 겁니다.

계는 수행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 중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것입니다.

바른 행동거지에서 바른 마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어려운 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실천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마음을 내어 상황에 맞게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누구에게나 불성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리도 많은 곳을 헤매고 찾아 다니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 방황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니 찾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순우리말입니다. 마음의 수양을 하는데 있어서 오르고 또 올라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 바로 내 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계를 세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불교는 실천불교입니다.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 이것들이 바로 보시고 수행입니다. 계를 스스로 만든 핑계로 만들지 말고 정진으로 다져진 진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



#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끄



하나,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 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외모가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

둘, **발끈** 오기 있는 사람이 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셋,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넷,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다섯,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강금순  
단음사 교도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산수유가 꽃눈으로 시간을 견디며 때를 맞춰제일 먼저 노란 얼굴을 내민다.

2016년 방송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으로 편입하면서 시작한 공부가 올 해 마지막 2학기만 남겨두고 있다. 못 할 것 같던 일도 시작하면 어떻 게든 하게 되고, 시작이 반이라더니 올 해 겨울에 있을 영양사, 위생사 면허시험 준비와 내년 2월 졸업과 함께 끝난다.



입학식 하던 날, 어색하게 들어간 입학식장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아기 엄마, 장애우 등의 열정 가득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만난 얼굴을 학교에서 보게 되면 내심 반갑고 포기하지 않길 응원하게 된다.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자 모이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냈으리라.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던 내가 새삼 작게 느껴졌다.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내게 영양사 면허를 먼저 취득한 언니의 권유와 용기로 시작했고, 책 읽고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으리란 예상과는 달리 여상을 졸업하고 전문대학도 행정과를 졸업한터라 자연과학계열인 식품영양학과는 그야말로 단어조차도 생소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인체생리학, 생화학, 임상영양학 등 책 두께에 지레 겁을 먹었고, 전문 용어들에기가 눌려 오랜 시간 책상에 매달려 있어도 좀처럼 나가지 않는 진도에 절망한 날도 많았다. 첫 중간고사 과제물 제출하고 점수 확인하던 떨림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기말고사 시험 긴장감에 밤을 꼬박 새우고 2시간이나 걸리는 버스에서도 잠 한숨 잘 수 없었고, ‘직장인이 대부분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쉽게 나오겠지’ 생각했던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첫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송대는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쉽지 않다던 말을 실감 했다.

그나마 재미있게 공부한 한국사의 이해, 철학의 이해 등 교양과목이 있어 위로를 받았다. 방송대에서 교양으로 접하기 전에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뉴스도 책도 즐겨 보게 된 것만



으로도 편식하는 책 읽기에 큰 변화가 생겼고, 작은 딸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증도 함께 따게 됐다. 일반 수험생들처럼 목숨 걸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얇의 즐거움을 배웠고, 1년에 2번 중간고사로 주어지는 과제물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도서관에서 책이나 신문, 관련 도서를 이용해 과제를 하면서 좋은 점수는 물론 배경지식도 자연스럽게 늘어 그 어렵고 과학 많은 생화학, 인체생리학, 임상영양학, 영양관정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영양관련 공부가 더 재미있고 서점에 가면 영양관련 책도 술술 잘 읽혀지게 되는걸 보면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가 보다.

방송대는 특성상 혼자 공부해야 하고, 출석수업과 출석시험, 기말고사 등 1년에 몇 번 학교에 갈 일이 있어 함께 할 동기가 있어야 지치지 않을 수 있는데 고맙게도 입학부터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는 선배 1명과 동기 2명이 있어 서로 용기가 되어준다. 선배는 56살 언니로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 돈이랑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통기타 봉사활동하며 4년 전액장학금과 사회복지사 1급, 영양사 면허취득이 목표인 과대표 언니이고, 동기인 고령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조리사로 근무하는 53살 언니는 영양사 면허취득과 함께 조리사에서 영양사로 승진이 보장된 우리 중에 제일 엘리트 언니다. 막내는 방송대 다니면서 기다리던 애기가 생겨 만삭으로 출석수업 들으러 나오고 지금은 5개월 된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며 이렇게 만난 인연이 새삼 고맙고 따뜻하다.

방금 외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공부도 다 때가 있구나!’하며 속상할 때도 많지만 어쩔 수 없으니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수밖에. 3월 중순부터 출석수업과 출석시험, 중간고사 과제물 제출로 본격적인 4학년 1학기가 시작된다.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음을 잘 알기에 올 해 계획한 공부를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은 잠시 보류해 두고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며 모자란 잠을 자고도 피곤하지 않고 출근길이 벅찬 많은 날들을 즐기려 한다.

며칠 전 손석희 아나운서가 쓴 ‘지각인생’이란 글을 읽게 되었다. 마흔이 넘어 얻게 된 종이 한 장의 학위가 아닌 그 시절 20살 차이의 외국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준비한 만큼 실력발휘를 못한 억울함에 교실 구석에서 울었던 그 열정이 훗날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는 그 말이 오늘의 내가 지금보다 멋진 내일의 나를 꿈꾸게 한다.

무엇이건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일 떨리지 않는다는 말과 나 자신을 믿으며 지면을 통해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길 소원해본다. ━



#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

불휘  
관성사 교도



“엄마가 내 친구였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 진지충아. 이 설명 충아라고 말이야.”

이건 내가 딸한테 듣는 말이다. 나는

“야.. 이시키야. 내가 벌레면 니도 벌레다 요놈아. 이 벌레 놈아.”

하고 한바탕 시끌거린다. 학교에서 쓰는 말을 생각 없이 집에서 하는 딸에게 나는 그 말을 쓰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명한다. 하지마라고 하는 것 많고 해라 하는 것 많고, 다른 사람은 다 써도 내 딸만은 그런 낱말 안 썼

으면 좋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점점 더 설명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딸이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 모르는 것이 있어 물으면 정보 이용료 없이 무제한으로 정확한 설명을 하기위해 애를 쓰기도 했다.

“엄마, 친구한테 화가 많이 나면 욕을 좀 해도 돼?”라고 물었을 때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욕을 안 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곤 했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때때로 화가 나도 욕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을 자랑하기도 했던 딸이다. 그래서 내 딸은 욕을 거의 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다.

중학생이 된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욕 실력이 장난 아니게 늘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어 보았다.

“근데 엄마, 엄마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사실 나 욕 엄청 잘해. 중학생이 라서 늘어난 게 아니라 들기는 늘어난 거야.”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딸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하는 것은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교육이 안 된 것이 아이가 없었다.

“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도 쓴다고?”

“응. 근데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 또래 중에서 내가 거의 욕을 안 써, 내가 욕을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꼭 쓸 데 써.”

“쓸 데가 언젠데?”

“지금?”

딸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시원하게 욕을 날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싸운 것 아니었어?” 내가 물으면 둘다 입을 맞춘 듯이 “아뇨. 그리고 이러면서 애들은 커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다. 그러면서 큰단다.

어렸을 때 학생회 범회 때 들었던 설법이 내 인생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자주 자주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결국 진지해진다. ¶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자신을 일깨우라

- 법구경 -



# 내 잘못이다

법일  
벽룡사 주교



어느 시골에 15세 소녀가 36세 먹은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시집간 첫날 아침밥을 하다가 그만 밥을 모두 태워버렸다.

새댁은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해서 밥을 모두 태웠다고

그런데 남편은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물을 맞추어주고 불을 때 주었으면  
밥이 안 탔을 것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했다.

시아버지가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 쪽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새댁은 또 눈물이 났다.

“아버님 제가 잘못해서 밥을 모두 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장작을 너무 크게 쪘게, 네가 불을 못 꺼서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다. 용서해주거라.”

부엌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오늘따라 내가 코가 막혀 밥 타는 냄새를 못 맡았  
구나. 날 용서해주거라.”

모든 식구가 자신의 잘못이라 하면서 함께 위로해 주었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며 살아갑니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저승에서의 심판을 다룬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은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영화에선 죽음 후에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에 대한 죄를 심판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지옥의 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업보<sup>業報</sup>사상과 맥을 같아 한다.

카르마(karman: 갈마<sup>煩惱</sup>라 음역함)의 번역 어인 업은 만드는[作·만들다<sup>造</sup>·하다<sup>爲</sup>]라는 뜻의 어근 k-)을 작용이나 힘[-man]을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행<sup>行</sup>’으로 번역되는 산스크라(samskāra, 行, 造作)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러한 업에 의해 3계<sup>業界</sup><sup>1)</sup>가 유지 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욕계<sup>欲界</sup>에서 업은 기본적으로 육근<sup>六根</sup><sup>2)</sup>이 편안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합의하고 있다.

윤회를 유발하는 힘을 가리키는 업은, 무엇보다 도덕적 인과율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무아<sup>無我</sup>를 얘기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인 행위 주체를 설명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저승의 심판대에 선 내가 과거의 나와 동일한 내가 아니라면,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 힘들 것이다.

동일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유식불교에서처럼 아뢰야식<sup>阿賴耶識</sup>을 상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충마음인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문제를 의식화한 것이다.

업의 인과 관계를 넣는 힘은, 이와 같은 3계의 윤회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도를 닦아서 고의 소멸에 이르는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보통 말하는 업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3계의 유<sup>有</sup>를 불러일으키는 업은 ‘유루업<sup>有漏業</sup>’ 즉 번뇌를 동반하는(혹은 번뇌에 말미암는) 업이라 하고, 도를 닦아서 생기는 업을 ‘무루업<sup>無漏業</sup>’이라 한다. 또한 제불의 중생 제도의 작용을 불업<sup>佛業</sup>이라 하는데, 다만 이것은 결과를 넣는 것은 아니다. ━

1) 미혹한 중생이 윤회(輪迴)하는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세계.

2) 육근(六根) : 눈(眼根)-귀(耳根)-코(鼻根)-입(舌根)-몸(身根)-뜻(意根)의 총칭.

사바 범어 sahā

婆 사바 세상 - 사

婆 음역자 - 바

娑  
婆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 말

원어는 산스크리트어의 sahā.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하는 본래 대지를 의미하는데 석존이 이 대지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석존의 세계>, <이 세>의 의미가 되었다. 따라서 사바는 정확하게는 사바세계 Saha-lokadhātu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감인 塵忍, 능인 能忍이라고도 잡회 雜會라고도 번역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하는 경토 境土를 말한다. 따라서 부처님이 섭화하는 경토인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사바세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탐食·진塵·치病 삼독 三毒의 번뇌를 겪어내야 하고, 오온 五蘊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국토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자연히 중생들 사이에서 참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인내를 강요당하는 세간,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라는 말이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수고를 참고 견디어야 한다.

내야 하는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일체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이다.

전자는 원어의 사하를 <감내한다 sah>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말로 이해했기 때문이며, 후자는 사하와는 전혀 다른 <집회 sahā>가 원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바는 원래 원어의 이해나 번역어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불교에서는 더욱 다양한 의미로 전화해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원래 널리 <감인>의 의미로 이용되었고, 인계 忍界, 인토 忍土 등으로도 불렸으며, 이 세상은 인간이 모든 악사나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방황의 세계, 즉 기피해야 하고, 벼려야 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황의 세계는 그대로 불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보고, 선종에서는 <사바즉적광토>라고 하며, 미계 遂界가 바로 불계 佛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화경』에는 석가불은 이 세상의 영취산 위에서 『법화경』을 주장했다고 하므로, 그 설법의 장소를 <영산정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토는 사바세계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바는 석가불의 불국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포항시 김지미 님



▲ 울산 실보사 덕광 님



▲ 부산 동래구 박소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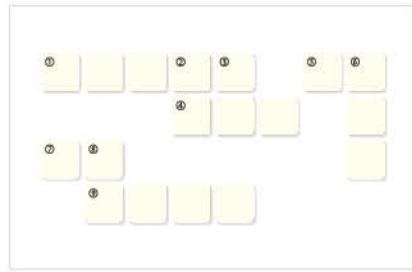


▲ 서울 대림동 전초롱 님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 가로 세로 낱말퀴즈!



세로낱말

- ②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가루수프를 따로 넣음.
  - ③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④ 공안 칙군公安職群 공무원의 자질識別의 하나:  
교도소에서 교정에 관한 일을 맡아봄.
  - 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 말. (p76 참조)

가로낱말

- ①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 특히 중앙은행이 단기 외자의 유입 흐름을 규제하는 조항을 말한다. '방침', '지침'으로 순화.
  - ④ 면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 ⑦ 서양의 미술과 양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⑨ 동물 식물 세균 따위의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비세포성 생물.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증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지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47(2018)년 4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봄꽃의 노래

- 정연복

내가 있어 세상이 밝으니 기분 참 좋다  
    많이 많이 행복하다.  
  
나의 생 비록 짧지만 온몸 바쳐  
    한 점 불꽃이 되리.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가슴마다  
    사랑의 불 활활 지펴주리.

봄이 되니 몸도 마음도 둥둥 떠다니는 듯하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다.  
나이들과 오랜만에 벚꽃 구경을 하고 들어왔더니,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다.  
집 안팎으로 봄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봄꽃구경을 하면서  
새로운 봄을 즐겁게 맞이할 준비를 한다.

4월호

---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선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않는다

---

-환당 대종사 -